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오 경 자[†] 문 경 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빈곤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히고자 빈곤가정 밀집지역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 483명을 대상으로 가족위험요인, 부모자녀관계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평가하고 1년 후에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평가하였다. 1, 2차 평가에 모두 참여한 331명(남 162명, 여 169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작용하는 기제가 성별과 부적응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빈곤이 부모의 부부갈등, 문제성 음주 등 가족위험요인 및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매개모형이 지지되었으며, 우울에 대해서는 가족위험요인이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우울은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었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모자녀관계의 매개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위험요인과의 직접경로만이 유의한 수준에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예방적 개입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빈곤, 청소년,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 가족위험요인, 부모자녀관계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선도연구자지원사업-H20020).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 경 자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FAX : 02-365-4354 / E-mail : kjoh@yonsei.ac.kr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 청소년들은 우울,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저하 및 품행문제 등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Gibbs, 1986; Kellam, Ensminger, & Turner, 1977; Langner et al., 1969; McLoyd, 1990; Meyers & King, 1983), 주요 심리장애로 진단받을 확률이 대조집단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ostello et al., 1996). 이와 같이 빈곤가정의 열악한 환경이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국내의 빈곤계층 연구는 주로 경제학적 측면이나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다루어졌고 빈곤의 영향을 심리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드물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실직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었으나(정환구, 오경자, 1998; 정혜경, 이훈구, 윤소연, 1998), 실직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빈곤경험과는 다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결손가정 등 빈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결과(오승환, 2001)는 있으나 빈곤의 영향의 직접적인 평가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최근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 등 적응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박현선, 1998),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빈곤이 아동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아동 학대 등 가족관련 위험요인들이다. 예를 들어, 빈곤가정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부모의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의 와해는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의 증가, 학업성취도의 저하 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Bakke, 1940; McLanahan, 1997; Offord, Boyle, & Racine, 1991). 또한 부모의 우울증, 문제성 음주, 약물남용, 그리고 아동 학대 및 방임 등도 빈곤가정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문제(Alpern & Lyons-Ruth, 1993; Kadushin & Martin, 1981;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로, 이로 인한 부정적 경험에의 노출이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들의 부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우울, 문제성 음주, 가정 폭력 등 가족 내 열악한 환경이 빈곤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오경자, 김은이, 도례미, 어유경, 2005), 우리나라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도 가족 요인이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어떠한 요인을 통하여 매개되는가는 이론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빈곤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적 개입방안의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빈곤과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서 여러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다.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와 Whitebeck(1992)은 미국 중서부의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12-14세 사이의 백인 남자 청소년 20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우울과 부부간 갈등을 증가시키며 이는 다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감소로 이어져, 청소년의 학업 수행, 또래관계의 악화와 자신감의 저하를 가져오며, 나아가서는 우울 및 반사회적

행동 등 적응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Elder, Nguyen과 Caspi (1985)는 1920년에서 1921년에 태어나 1930년대 최악의 경기불황시기에 미국 Oakland에서 성장한 집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고통과 자기부적절감을 증가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거부적 태도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중요한 매개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는 청소년의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오경자 등, 2005), Conger 등(1992) 및 Elder 등(1985)의 연구와 일관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빈곤가정에서 부모가 엄격하게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는 경우 자녀의 반사회적 일탈행동 및 약물남용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하며(Haapasalo & Tremblay, 1994; Peterson, Hawkins, Abbott, & Catalano, 1994), 학업성취의 수준도 높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어 있어(Baldwin, Baldwin, & Cole, 1990), 적절한 통제를 소홀히 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Conger 등(1992)의 연구는 광범위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빈곤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간 갈등과 부모의 우울,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보다 정교화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의 두 가지 유형인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onger 등(1992)의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행동과 우울을 하나의 이론변인으로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표집이 남자 청소년에 국한되어 빈곤 가정에서의 성장경험이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Conger 등(1992)의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선행연구(Bolg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 Eckenrode, Rowe, Laird, & Braithwaite, 1995; Luthar, 1995, 1999)와 여자 청소년들의 자료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빈곤가정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지지가 우울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는 최근의 국내 연구결과(오경자 등, 2005)를 감안할 때, 추후의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에서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서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의 부정적 영향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부부간 갈등, 문제성 음주, 우울, 가정폭력 등의 가족위험요인을 통하여, 그리고 이차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통하여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 등 부적응 문제로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에 본 연구의 기본모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부모자녀관계가 가족위험요인의 영향을 모두 흡수하는 완전매개모형이다. 기본모형에 가족위험요인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경로를 추가한 모형(부분매개모형 1)과 가족위험요인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추가한 모형(부분매개모형 2)을 각각 기본모형과 비교하여, 기본모형에 대비한 모형적합도의 향상 정도를 평가하였다.

Conger 등(1992)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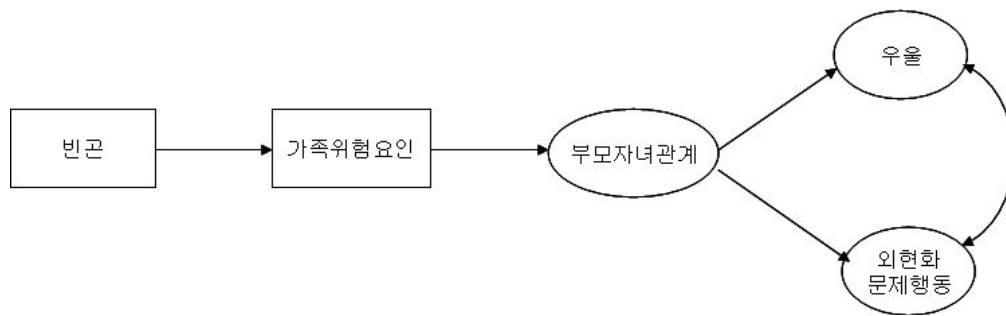


그림 1. 빈곤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완전매개모형

에서 매개요인 및 적응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 횡단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 검증을 시도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개요인으로 설정된 가족위험요인 및 부모자녀관계의 평가와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평가가 1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다. 또한 빈곤가정의 부정적 영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간에 모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지역에서 정부의 생활보호지원 대상을 포함한 빈곤계층 가족이 밀집되어 있는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의 K중학교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3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1차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483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1년 후인 2004년 6월부

터 7월까지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1차 설문과 2차 설문에 모두 응답한 학생은 351명이었다. 351명의 학생들 중 자료 분석에 사용된 척도들에서 20% 이상의 무응답을 보인 학생 8명과 양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보고한 12명을 제외한 331명(남 162명, 여 169명)이 자료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에 포함된 331명 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빈곤의 객관적 지표로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학생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 여부 및 무료 급식 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1차와 2차 평가에서 모두 수급 및 무료급식지원을 받은 집단은 전체 학생의 16.3%, 1차 평가에서는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2차 평가에서는 제외되었거나 혹은 2차 평가에서만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집단은 19%로 전체 학생의 35.3%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혹은 2차 평가에서 한 번이라도 수급 및 무료급식 지원 대상이었던 청소년은 빈곤집단으로, 나머지 64.7%를 비교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녀 청소년들의 학년, 빈곤집단 및 부모의 교육수준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남녀 청소년의 학년, 빈곤집단 및 부모의 교육수준 분포

| | | 남 | 여 | 전체 |
|----------------|---------------|-----------|-----------|-----------|
| 학년 | 중1(2차년도 중2) | 86(53.1) | 83(49.1) | 169(51.1) |
| | 중2(2차년도 중3) | 76(46.9) | 86(50.9) | 162(48.9) |
| 수급 및 무료급식대상 | 1차, 2차 모두 비수급 | 97(59.9) | 117(69.2) | 214(64.7) |
| | 1차 또는 2차 수급 | 36(22.2) | 27(16.0) | 63(19.0) |
| | 1차, 2차 모두 수급 | 29(17.9) | 25(14.8) | 54(16.3) |
| 부의 교육수준 | 대졸이상 | 50(30.9) | 52(30.8) | 102(30.8) |
| | 고졸 | 100(61.7) | 91(53.8) | 191(57.7) |
| | 중졸이하 | 5(3.1) | 15(8.9) | 20(6.0) |
| | 무응답 | 7(4.3) | 11(6.5) | 18(5.4) |
| 모의 교육수준 | 대졸이상 | 23(14.2) | 32(18.9) | 55(16.6) |
| | 고졸 | 109(67.3) | 108(63.9) | 217(65.6) |
| | 중졸이하 | 23(14.2) | 20(11.8) | 43(13.0) |
| | 무응답 | 7(4.3) | 9(5.3) | 16(4.8) |

단위는 명, ()은 %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빈곤이 1차 평가에서 측정된 가족위험요인, 부모자녀관계와 1년 후 2차 평가에서 평가된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1차 시기

가족위험요인. 가족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녀구타, 부부간 폭력,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부갈등, 부모의 우울 등 5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0-3)로 응답하게 하여 다섯 문항에 대한 반응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지지,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등 2가지 측정변인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지지는 Dubow와 Ulman(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측정하는 8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신다” 등의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0-3)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8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는 유안진과 민하영(1998)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 관련 스트레스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님이 용돈은 적게 주시고 용돈을 아껴 쓰라고 말씀하신다’ 등 일

상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와의 갈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0-3)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갈등 8개 문항은 .76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냈다.

2차 시기

우울.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CES-D는 원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이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이주영, 2000; Garrison, Addy, Jackson, McKeown, & Waller, 1991). 지난 한 달 동안의 정서 상태를 묻는 20개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부터 ‘매일 있었다’까지의 4점 척도(0-3)로 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 문항 4개를 제외하고 총 16문항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우울감 요인 9문항, 거절감 요인 2문항, 절망감 요인 5문항으로 3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16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우울감’이 .87, ‘거절감’이 .75, ‘절망감’이 .81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비행 행동을 측정하였다. 공격성은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2001)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에서 공격성 척도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비행 행동은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의 비행척도 9문항에 Buhrmester(1992)

의 “행동 연구조사(Activities Survey)”에서 일탈 행동을 측정하는 7문항을 추가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의 3점 척도(0-2)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35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8로 나타났으며, ‘공격성’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5, ‘비행 행동’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9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의 협조를 얻어 1년의 간격을 두고 2차에 걸쳐 자기 보고식 설문에 참여하였다. 1차 평가에서 중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은 2차 평가에서는 중학교 2-3학년이 되었다. 설문은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진행되었고 약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의 조사내용에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대상 여부, 가족 내 갈등 등 일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문지에는 이름과 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적지 않고 학년, 반,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피험자번호를 배정하여 1차와 2차 조사자료와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를 통합하였다.

자료분석

기술통계를 위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11.0을 사용하였으며, 모형 검증은 AMOS 4.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시행하였다.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

로는 홍세희(2000)의 논문에서 추천된 GFI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합치들은 .90 이상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보며,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모형, .08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결 과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를 다변량 분산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Wilk's Lambda를 지표로 삼았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여, $F(8,322)=7.27$, $p<.001$,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가족위험요인은 남학생 집단에서 더 높았으며, $F(1,329)=12.60$, $p<.001$,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도 남학생 집단에서 더 높았다, $F(1,329)=10.47$, $p<.001$. 반면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았다, $F(1,329)=5.34$, $p<.05$.

부적응 지표로 측정한 우울 점수에서도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우울감, $F(1,329)=19.58$, $p<.001$, 거절감, $F(1,329)=5.55$, $p<.05$, 절망감, $F(1,329)=4.28$, $p<.05$, 모두에서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공격성 척도와 비행 척도에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검증 결과

이론 변인으로 설정된 부모자녀관계,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의 측정구조를 검증하였다.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측정 구조를 검증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 모형은 성별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검증하는

표 2.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 | | 남학생($n=162$) | 여학생($n=169$) | 전체($n=331$) | $F(1,329)$ |
|--------|--------|----------------|----------------|---------------|------------|
| 가족위험요인 | 정서적 지지 | 2.54(2.54) | 1.66(1.95) | 2.09(2.30) | 12.60*** |
| | 스트레스 | 16.32(5.63) | 17.70(5.21) | 17.03(5.45) | 5.34* |
| | 우울감 | 10.19(4.77) | 8.49(4.79) | 9.32(4.85) | 10.47*** |
| 우울 | 거절감 | 5.24(4.28) | 7.67(5.59) | 6.48(5.13) | 19.58*** |
| | 절망감 | .70(1.09) | 1.01(1.30) | .86(1.21) | 5.55* |
| | 비행 | 2.77(2.56) | 3.41(3.04) | 3.10(2.83) | 4.28* |
| 외현화 | 공격성 | 2.29(2.65) | 1.80(2.22) | 2.04(2.45) | 3.33 |
| 문제행동 | 비행 | 8.15(5.08) | 8.60(5.63) | 8.38(5.37) | .60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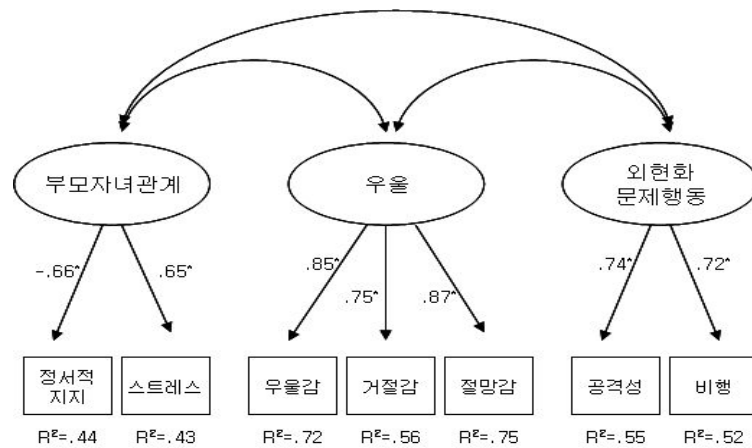


그림 2.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측정 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p < .05$

것이므로 두 집단의 측정 구조가 동일한지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측정 구조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에 동일화 제약을 주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관찰변인의 계수 및 주요 변인의 경로계수가 성별에 따른 두 집단에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측정 모형의 카이 자승 값을 산출해 낸 후, 이를 동일화 제약 이전에 산출된 카이 자승값과 비교한 결과,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이 동일한 측정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_{diff}(7)=11.60$, ns . 이는 이론 변인에 대한 각 측정 변인들의 설명력이 집단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며, 집단별 비교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전체 집단,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론모형 검증을 위해 빈곤이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모형과 가족위험요인이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하였다. 남학생 집단에서의 모형의 적합도는 표 4에, 모형별 경로계수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위험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모형 1을 완전매개모형과 비교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chi^2_{diff}(1)=.98$, ns . 가족위험요인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모형 2를 완전매개모형과 비교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 향상이 통계적 유의도 수준에 근접하여 직접 경로의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 | GFI | CFI | TLI | NFI | RMSEA |
|------------|-----|------|------|-----|-------|
| 전 체(n=331) | .99 | 1.00 | 1.00 | .99 | .00 |
| 남학생(n=162) | .99 | 1.00 | 1.05 | .99 | .00 |
| 여학생(n=169) | .98 | .99 | .98 | .97 | .04 |

표 4. 남학생 집단에서의 모형별 적합도 지수

| 남학생(n=162) | GFI | CFI | TLI | NFI | RMSEA |
|------------|-----|------|------|-----|-------|
| 완전매개모형 | .97 | 1.00 | 1.01 | .94 | .00 |
| 부분매개모형1 | .97 | 1.00 | 1.01 | .95 | .00 |
| 부분매개모형2 | .98 | 1.00 | 1.02 | .95 | .00 |

표 5. 남학생 집단에서의 모형별 경로계수와 상관계수

| | | | 완전매개모형 | 부분매개모형 1 | 부분매개모형 2 |
|-----------|---|----------|-------------------|-------------------|------------------|
| 표준화된 회귀계수 | | | | | |
| 빈곤 | → | 가족위험요인 | .03 | .03 | .03 |
| 가족위험요인 | → | 부모자녀관계 | -.57*** | -.59*** | -.56*** |
| 가족위험요인 | → | 우울 | — | -.11 | — |
| 가족위험요인 | → | 외현화 문제행동 | — | — | .22 [†] |
| 부모자녀관계 | → | 우울 | -.25* | -.35* | -.24* |
| 부모자녀관계 | → | 외현화 문제행동 | -.21 [†] | -.23 [†] | -.03 |
| 상관계수 | | | | | |
| 우울 | ↔ | 외현화 문제행동 | .54*** | .55*** | .57*** |

[†] $p < .01$ * $p < .05$ *** $p < .001$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chi^2_{diff}(1)=3.36$, $p < .10$. 남학생 집단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지지된 부분매개모형 2의 경로계수를 그림 3에 표시하였다.

여학생 집단에서의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1과 2의 모형 적합도는 표 6에, 모형별 경로계수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위험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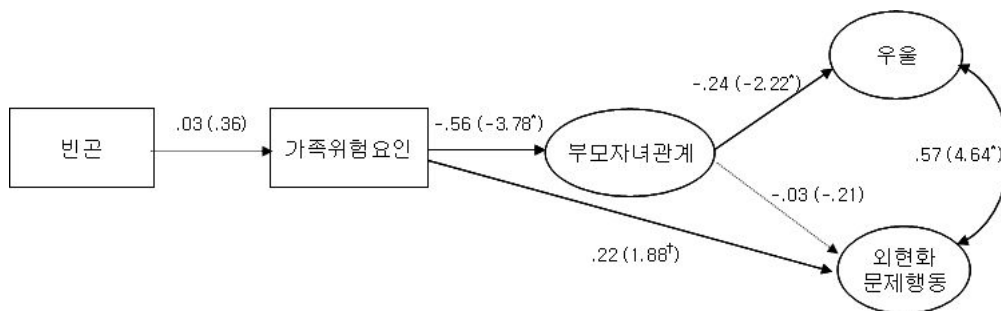


그림 3. 남학생 집단의 지지된 이론 모형: 부분매개모형 2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 검증치. * $p < .05$

표 6. 여학생 집단에서의 모형별 적합도 지수

| 여학생(n=169) | GFI | CFI | TLI | NFI | RMSEA |
|------------|-----|-----|-----|-----|-------|
| 완전매개모형 | .96 | .99 | .98 | .94 | .04 |
| 부분매개모형1 | .97 | .99 | .99 | .95 | .03 |
| 부분매개모형2 | .96 | .98 | .98 | .94 | .05 |

표 7. 여학생 집단에서의 모형별 경로계수와 상관계수

| | | | 완전매개모형 | 부분매개모형 1 | 부분매개모형 2 |
|-----------|---|----------|---------------------|---------------------|---------------------|
| 표준화된 회귀계수 | | | | | |
| 빈곤 | → | 가족위험요인 | .18 [*] | .18 [*] | .18 [*] |
| 가족위험요인 | → | 부모자녀관계 | -.73 ^{***} | -.68 ^{***} | -.73 ^{***} |
| 가족위험요인 | → | 우울 | — | .23 [*] | — |
| 가족위험요인 | → | 외현화 문제행동 | — | — | -.01 |
| 부모자녀관계 | → | 우울 | -.51 ^{***} | -.28 [*] | -.51 ^{***} |
| 부모자녀관계 | → | 외현화 문제행동 | -.40 ^{***} | -.39 ^{***} | -.41 [*] |
| 상관계수 | | | | | |
| 우울 | ↔ | 외현화 문제행동 | .53 ^{***} | .54 ^{***} | .53 ^{***} |

* $p < .05$ *** $p < .001$

한 부분매개모형 1을 완전매개모형과 비교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켰다. $\chi^2_{diff}(1) = 3.94$, $p < .05$. 가족위험요인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

개모형 2를 완전매개모형과 비교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지 못했다, $\chi^2_{diff}(1) = .00$, ns . 여학생 집단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지지된 부분매개모형 1의 경로계수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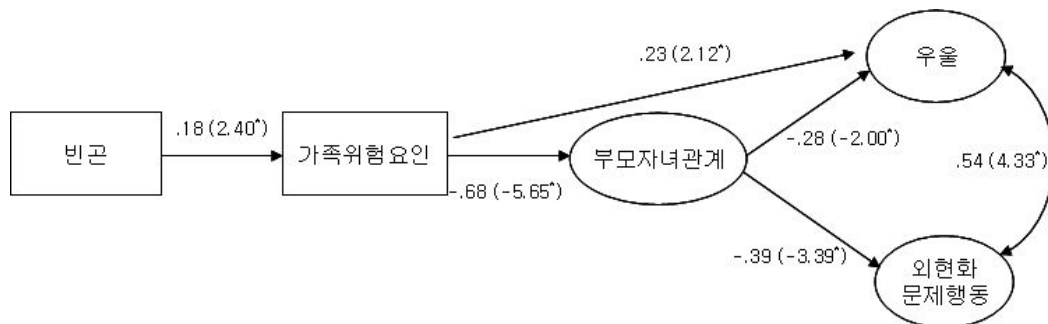


그림 4. 여학생 집단의 지지된 이론 모형 : 부분매개모형 1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안은 t 검증치. * $p < .05$

림 4에 표시하였다.

빈곤이 가족위험요인을 매개하지 않고 부모자녀관계나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각각에서 지지된 이론모형에 빈곤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직접 경로의 유의도와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남학생 집단에서 지지된 이론모형(부분매개 모형 2)에 빈곤의 직접경로를 추가하였을 때, 빈곤이 부모자녀관계로 가는 경로는 $-.08(t = -.90, ns)$, 빈곤이 우울로 가는 경로는 $-.03(t = -.41, ns)$, 빈곤이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06(t = -.75, ns)$ 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들 경로가 추가되었을 때 모형의 적합도도 향상되지 않았다.

여학생 집단에서 지지된 이론모형(부분매개 모형 1)에 빈곤의 직접경로를 추가하였을 때, 빈곤이 부모자녀관계로 가는 경로는 $-.06(t = -.80, ns)$, 빈곤이 우울로 가는 경로는 $.12(t = 1.78, ns)$, 빈곤이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03(t = -.42, ns)$ 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들 경로가 추가되었을 때 모형의 적합도도 향상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기제를 밝히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포함한 남녀 청소년 331명을 1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빈곤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연결하는 모형을 조사한 기존의 연구(Conger et al., 1992)에서는 횡단연구 자료를 통하여 모형

분석을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1년간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에서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족위험요인은 부모자녀관계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청소년의 부적응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그리고 문제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모두 부모자녀관계가 매개요인으로서 작용하였으나, 남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우울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가 지지된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한 매개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가족위험요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위험요인과 우울의 관계가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한 매개경로만이 유의한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된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자녀관계를 통하여 매개되는 경로 이외에 우울과의 직접 경로도 유의하였다.

셋째,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가족위험요인을 통하여 매개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은 여자 청소년의 자료에서는 지지되었으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수급여부와 가족위험요인간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단 수급여부로 측정된 빈곤이 가족위험요인을 통하여 청소년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리고 남녀 청소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빈곤과 부모자녀관계 및 우울,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도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아 빈곤이 가족위험요인을 통한 매개경로 이외의 경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가 빈곤가정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것이다. 빈곤가정의 가족위험요인은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매개 요인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남자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여자 청소년들의 우울을 유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의 열악한 정서적 환경과 특히 부모의 정신건강문제 및 부부갈등 등 가족위험요인은 부모의 심리적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서 자녀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있다(deCubas & Field, 1993). 또한 빈곤가정의 부모들이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이 적고 자녀의 정서적 욕구에 민감한 양육을 하지 못하는 등 빈곤가정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취약성을 보고한 서구에서의 연구(Conger, et al., 1992; 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Lempers, Clark-Lempers와 Simons(1989)는 일관성 없고 처벌적인 부모의 훈육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청소년집단에서 비행과 약물남용 문제를 매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부모가 엄격하게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면 반사회적 일탈행동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어 있어(Haapasalo & Tremblay, 1994; Peterson et. al, 1994), 서구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외현화 문

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가 남녀 청소년의 우울,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유의하였으나 남자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구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지지 및 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등 주로 지지적 관계의 측면에서 평가되었고 부모의 엄격한 감독 등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육행동의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여자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에는 부모자녀관계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가 비행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모의 구체적인 감독 등 다른 기제를 통하여 매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련 변인을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모형은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자료에 더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수급여부와 가족위험요인,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연결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고,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경로는 유의하기는 하였으나 여자 청소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위험요인은 부모자녀관계를 통한 매개경로에 추가하여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여 가족 요인이 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의 가족관계와 관련

된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아가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한 Juarez, Viega와 Richards(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빈곤과 열악한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성에 따라, 그리고 적응문제의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초기 청소년기에 국한된 것인지, 혹은 전 연령층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여부로 평가된 빈곤과 가족위험요인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빈곤과 가족위험요인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서구의 선행연구들(Alpern & Lyons-Ruth, 1993; Kadushin & Martin, 1981; Straus, Gelles, & Steinmetz, 1980)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자료에서는 빈곤과 가족위험요인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 달리 빈곤이 가족위험요인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논리적으로 빈곤이 가정 폭력 등 가족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들의 자료에서 빈곤과 가족위험요인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실제 현상보다는 측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가족위험요인이 자기보고에 의해서 평가되었는데 남자 청소년들은 가족 내의 정서적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부모간의 불화 등의 가족위험요인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더라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가족위험요인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위험요인을 청소년 자기보고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자료를 통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빈곤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를 보인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제를 밝힘으로서 이에 대한 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빈곤가정 청소년의 부적응에는 가족위험요인 및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을 위한 예방적 개입에서 우선적으로 가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의 적응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 이외에, 빈곤의 이차적 결과로 나타나는 가족 문제, 즉 부모의 불화, 문제성 음주, 우울, 가정 폭력 등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에 대한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가족 구성원 각각의 적응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는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 자녀의 적응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부모자녀관계는 우울과 외현화 문제 행동에 모두 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입은 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빈곤가정 부모들에게 청소년 자녀들과 지지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역할훈련, 혹은 의사소통훈련 등은 매우 중요한 예방적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위험요인 및 역기능적 부모자녀관계의 부정적 영향에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더 취약함을 시사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의 정서적 환경 개선 및 부모 자녀의 지지적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개입프로그램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이들 연구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이루어졌다(Conger et al, 1992; Elder et al., 1985).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의 내용 뿐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문화적 태도 또한 사회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크므로 서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가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구의 연구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밝혀진 가족관련 요인이 우리나라의 빈곤가정 청소년의 적응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과 심리사회적 적응을 연결하는 구체적 기제는 추가연구를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조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위험요인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가족변인을 포함하는 연구를 통하여 성별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유발하는 가족 위험요인 및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 등 가족 외 변인의 역할도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가 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가정 하에 중학교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빈곤의 영향은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 연구결과(Duncan & Brooks-Gunn, 1977; Luthar, 1999)를 감안할 때, 연령집단을 영유아 집단으로부터

고등학생 집단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여 여러 발달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세한 가계소득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를 빈곤의 기준으로 삼았고, 각 가정의 빈곤 정도 및 빈곤의 지속성 등 보다 상세하고 세분화된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가족위험요인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변인이 청소년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방문, 부모면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근래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장기적 대책으로 빈곤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긴급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청소년의 적응에 작용하는 기제를 규명하는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실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현선 (1998). 빈곤 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7, 11, 23-30.
- 오경자, 김은이, 도레미, 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53-71.
-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 오승환 (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 이혼, 별거 가족과 사망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7, 99-126.
- 유안진, 민하영 (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 가정학회지*, 36, 83-97.
- 이주영 (2000). 우울한 비행청소년 집단의 사회 정보처리 특성: 비행집단과 우울집단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 이훈구, 윤소연 (1998). 실직자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와 대응: 실직가정 아동과 비실직가정 아동의 정서문제 비교연구. 1998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819-842.
- 정환구, 오경자 (1998). 부모의 실직이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교육과학*, 49, 93-110.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lpern, L., & Lyons-Ruth, K. (1993). Preschool children at social risk: Chronic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t school and hom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5, 371-387.
- Bakke, E. (1940). *Citizens without work*.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Baldwin, A. L., Baldwin, C., & Cole, R. E. (1990). Stress resistant families and stress-resistant children. In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euchterlein, K.,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lger, K. E., Patterson, C., Thompson, W. W., & Kupersmidt, J. B. (1995).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9.
- Burmester, D. (1992). *Friendship, competence,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Unpublished grant proposal.
- Conger, R. D., Conger, K.,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Costello, E. J., Angold, A., Burns, B. J., Stangl, D., Tweed, D. L., Erkanli, A. B., & Worthman, C. M. (1996). The Great Smoky Mountains study of You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 1129-1136.
- deCubasm M. M., & Field, T. (1993). Children of methadone-dependent women: Developmental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266-276.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Duncan, G.J., & Brooks-Gunn, J. (1977). Welfare's new rules: A pox on children.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14, 67-73.
- Eckenrode, J., Rowe, E., Laird, M., & Braithwaite,

- J. (1995). Mobility as a mediator of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6, 1130-1142.
- Elder, G. H., Nguyen, T. V., & Caspi, A. (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 Garrison, C. Z., Addy, C. L., Jackson, K. L., McKeown, R. E., & Waller, J. L. (1991). The CES-D as a screen for depression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636-641.
- Gibbs, J. (1986). Assessment of depression in urban adolescent females: Implications for early intervention strategies. *American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 50-26.
- Haapasalo, J., & Tremblay, R. E. (1994). Physically aggressive boys from age 6 to 12: Family background, parenting behavior and prediction of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044-1052.
- Juarez, S. C., Viega, B., & Richards, M. H. (1997).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on exposure to violence and PTSD symptom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Kadushin, A., & Martin, J.A. (1981). *Child abuse: An interactional ev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ellam, S., Ensminger, M. E., & Turner, R. (1977). Family structure and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4, 1012-1022.
- Langner, R., Greene, E., Herson, J., Jameson, J., Goff, J., Rostkowski, J. & Zykorie, D. (1969). Psychiatric impairment in welfare and nonwelfare children. *Welfare in Review*, 7, 10-21.
- Lempers, J., Clark-Lempers, D., & Simons, R.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49.
- Luthar, S. S. (1995). Social competence in the school setting: Prospective cross-domain associations among inner-city teens. *Child Development*, 66, 416-429.
- Luthar, S. S. (1999). *Poverty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McLanahan, S. (1997). Parent absence or poverty?: Which matters more? In G.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 35-48). New York: Russel Sage.
- McLoyd, V.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eyers, H. F., & King, L. (1983). Mental health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the black American child. In G Powell, J. Yamamoto, A. Romero, & A. Morales (Eds.),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of minority group children* (pp. 275-306). New York: Brunner/Mazel.
- Offord, D., Boyle, M., & Racine, Y. (1991). *Ontario child health study: Children at risk*. Canada Queen's Printer for Ontario.
- Peterson, P. L., Hawkins, J. D., Abbott, R. D., & Catalano, R. F. (1994). Disentangling the

- effect of drinking by black and white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203-227.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traus, M., Gelles, R., & Steinmetz, S.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arden City, NY: Doubleday.
- 원고접수일 : 2005. 6. 14.
게재결정일 : 2005. 11. 2.

Pover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Kyung Ja Oh

Kyung Joo Moo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483 adolescents from grade 7 and 8 were sampled from a school in an area with heavy concentration of low income families. Family risk factors, parent-child relations were assessed with self-report measures at time 1;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ere assessed at time 2, 1 year later. SEM analysis of data from 331 adolescents(162 boys and 169 girls) who participated in both assessments revealed that adverse effects of poverty might operate through different pathways for boys and girls. For girls, family risk factors and poor parent-child relations mediated adverse effects of poverty on both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amily risk factors also had direct influence on depression in girls.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were significant for depression in boys, but their mediating effects fo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ere not supported by boys' data. Direct path from family risk factors to boy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as nearly significant.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in poverty.

Keywords : poverty, adolescents, depression,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amily risk factors, parent-child relations